

哲人 스피노사 그의 生涯와 哲學(三)

-誕生 三百年 記念을 마지며-

金斗憲

우리가 實體를 아는 것은 그 屬性에 依한다. 그러면 實體 卽 神의 屬性은 무엇이나, 思惟와 延長이 그것이다. 이것은 「세칼트[데카르트]」의 思想을 繼承한것이다. 그러나 「세칼트」의 二元論的 見解를 超脫하여 完全히 一元化하는데 努力하였다. 果然 그것은 스피노사의 特色을 이루었다.

스피노사는 이 兩者를 統一하기 爲하여 兩屬性의 樣態인 精神과 身體와의 內的 結合을 說明하였다. 卽 物과 心은 性質上, 相異한것이나, 實體上으로 보면 全然歸一한것이 卽 兩者는 二個의 別物이 아니라, 同一物의 二方面에 不過한것이다. 다시 말하면 延長의 方面에 物體로서 存在한것이 思惟의 方面에 精神으로서 存在한다.

이 見解는 現代 心理學의 物心 並行論과 將合한바잇스니, 所謂 新스피노사 主義가 이에 成立되었다.

스피노사世界觀의 또 한 가지 特色은 機械論的 必然論이다. 그이고 이것을 幾何學的으로 論證한것이였다. 이 必然的 決定論과 自然 論的 唯物論的 色彩의 結合은 또한 現代 「맑스」學派의 歡迎하는바이니, 或者是 스피노사는 「맑스」의 先驅者라고 까지 한다. 그러나 스피노사를 全然히 唯物論者로함은 넘어나 速斷일것이다. 스피노사의 必然觀은 마치 「헤겔」의 後繼者가 左右兩黨으로 分岐되었든것과 가튼 程度로 스피노사 哲學은 左右兩派로 分岐될 可能性은 多分이 含有한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스피노사는 單純한 唯物論者가 아닐 만큼 넘어나 唯心論的이였다.

그러면 그의 公然的 決定論이란 어떤것인가. 스피노사에 依하면 모든 有限한 事物現象은 그 存在와 作用에 잇서서 다른 有限한 事象에 規定되며 이 有限한 事象 卽 個物은 또 다른 個物에 規定되어 스침이 업다 한다. 그러므로 一切萬象은 因果의 連鎖에 잇다. 그러나 이 因果의 連鎖는 直接으로 神에 依屬한것이다. 卽 모든 個物은 自己의 特異性을 가지면서 無限한 神의 因果

의 關係를 가지고 잇는 것이다.